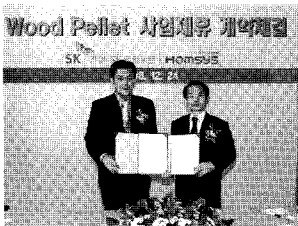


## 귀뚜라미-SK건설 녹색연료에 손잡아 펠릿보일러 보급하고 고품질 연료 공급받기로



▲ 귀뚜라미그룹 김규원 총괄사장(왼쪽)과 SK건설 SK임업부문 김영남 사장이 우드펠릿 독점공급

사업계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총괄대표 김규원 [www.krb.co.kr](http://www.krb.co.kr))이 SK건설(주) SK임업부문과 녹색연료사업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귀뚜라미는 24일 충북 충주 SK그룹 ‘수펙스센터’에서 친환경 녹색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연료인 ‘우드펠릿’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귀뚜라미그룹은 연료 공급과 분사

량을 자동화시켜 기존 화목보일러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고효율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SK임업부문은 보급에 필요한 고품질 펠릿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대학교 및 화천군과 국책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해 올해 초부터 약 1년간 수십 대의 제품을 강원지역에 설치, 필드테스트하고 있다.

또 SK임업부문은 전남 화순군 이양면 농공단지 1만 2500㎡ 부지에 60억원을 들여 펠릿 생산공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편 귀뚜라미 펠릿보일러는 톱밥을 분쇄해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펠릿’을 연료로 기름이나 가스처럼 연료를 저장해 난방 필요시에 자동으로 연료가 공급돼 온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나무를 투입해야하고 온도조절이 힘든 일반 화목 보일러

러의 단점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펠릿은 연소율 95%로 기존의 나무 장작에 비해서도 잔해가 거의 없고 경유보일러 난방보다 약 30%~5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연료로 특히 탄소배출량이 경유의 1/12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귀뚜라미그룹은 펠릿보일러의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약 1개월 동안 SK임업부문과 협력해 가정용 3만kcal/h 제품과 중형 6만kcal/h 제품에 대해서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동나비엔, 사랑의 손난로 총10만개 나누기 김철병 대표이사, '경제한파 함께 극복하자'



▲ 경동나비엔은 경제한파에 얼어붙은 상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따뜻한 손난로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동나비엔(대표 김철병, www.kdnavien.co.kr)은 자사의 따뜻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새벽시장 상인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손난로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포함해 3일간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모두 3개의 테마로 구성돼 추운 날씨와 최근 심각해진 경기 침체로 인해 얼어붙은 상인, 셀러리맨 등 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난로를 나눔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경동나비엔 임직원이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 양재

화회시장, 명동 등지를 방문해 총 10 만 개의 '보일러 뉘드려야겠어요'란 카피 이미지가 예쁘게 입혀져 있는 디자인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원형 손난로를 제공하는 등 고객들에게 경동나비엔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경동나비엔 김철병 대표이사는 "경제한파로 유난히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올해 겨울이지만 손난로에 따뜻함을 담아 전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동나비엔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린나이 비움 상표, 한국특허정보원장 수상 음식물처리기와 높은 연관성, 우수상표 인증



▲ 린나이코리아의 비움이 올해의 우수상표 공모전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을 수상했다

음식물처리기와 높은 연관성, 우수상표 인증

린나이코리아의 음식물처리기인 비움이 2008년 우수상표 공모전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을 수상했다.

우수상표 공모전은 우수한 상표를 선발해 포상하고 상표의 중요성을 알리며 브랜드 네임의 전략적 개발 및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데 수상한 작품은 특허청의 우수상표(Best Trademark)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비움(VIUUM)은 영문과 한글 상표 모두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상품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 점 등에서 심사 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식물처리기 사용 후의 청결하고 깔끔해진 느낌과 정돈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린나이는 음식물처리기 제품의 실제 디자인에서도 상표의 ‘UU’ 부분을 활용해 상표와 제품과의 연관성, 친밀함이 높은 것도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우수한 상표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린나이와 비움을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롯데기공 봉사조직 다물단, 사랑 나눠

‘사랑의 끝전 모으기 운동’ 의 성금으로 운동화 선물

롯데기공(대표이사 임종현)은 전 임직원이 지난 해부터 매월 급여의 천원 이하 끝자리를 모아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사랑의 끝전 모으기 운동’ 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사용처를 찾았다.

롯데기공 내 봉사조직인 다물단은 올해 모금된 금액을 지난 12월 23일 정신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신명보육원 302동 어린이 10명에게 운동화를 구입해 나눠 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구입한 운동화는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의견에 따라 원하는 운동화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직접 예쁘게 포장하고 신명보육원을 지원하는 타 자원봉사단과 전 원생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한 후 나누어 주었다.

롯데기공 관계자는 “다양한 사이즈, 기호로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따뜻함을 알고 용기를 내어서 꿈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길 거라고 믿는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에 롯데기공 내 봉사조직인 다물단은 창단과 더불어 인천시 부평구 소재 신명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작년 3월부터는 단순히 방문 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부모, 형제 자매 같은 역할을 하는 동봉사 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다물단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인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매월 방문해 같이 어울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활동을 매월 진행하며 간헐적이거나 연말연시 용도가 아닌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분기별로는 학용품 및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코퍼스트,타이머형 전기컨벡션 ‘피스토스’

타이머 · 임의조작방지 등 다양한 기능 갖춰

전기 난방기 전문업체 코퍼스트(www.kofirst.com)는 유럽형 웰빙 히팅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고품격 공간을 연출하는 타이머형 전기 컨벡터 ‘피스토스(Pistos)’ 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타이머형 ‘피스토스’ 는 기존에 출시된 난방기보다 진보한 난방기로 뛰어난 열효율의 방열 구조와 실내온도 감지센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며 원하는 시간에만 동작하는 타이머가 내장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벽걸이형 전기컨벡터다.

특히 원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24시간 작동 예약 타이머를 부착해 원하는 작동시간을 15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줄여 경제적인 난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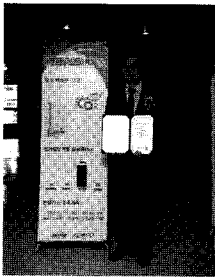
또한 온도센서가 내장돼 있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실내온도를 감지해 전원이 자동으로 온·오프되며 온도조절기를 적당한 온도에 맞춰 놓으면 온도가 6~8℃가 유지돼 추운 겨울에 실내의 배관이나 기타 시설물의 동파방지에 탁월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피스토스’ 는 공중화장실이나 스포츠시설, 외식업소, 수험생방, 욕실 등에 사용이 적합하다.

정원상 코퍼스트 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전기 라디에이터 ‘타이머형’ 은 사용자가 적정 온도나 사용

을 원하는 시간을 조절해 놓은 상태를 외부에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 온도조절기와 스위치의 조작부분을 보호하는 임의조작방지 커버가 장착돼 있다"라며 "관리자 외에 외부인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나 상가 등의 부분난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 경동나비엔, 탄소성적표지 시범 인증에 선정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장점 부각



▲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콘텐츠싱 on水' 가스보일러가 환경부 인증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시범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콘텐츠싱 on水' 가스보일러가 내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온실가스 라벨링 제도)에 시범 인증 제품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부문별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인증 대상 제품을 최종 선별했던 환경부 인증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동나비엔을 포함해 시범인증을 받은 각 부문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시범 인증 제품으로 선정된 '나비엔 콘텐츠싱 on水'는 환경 측면에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약 20% 정도의 가스비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보일러의 경우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잠열을 그대로 대기 중에 내다 버리지만 콘텐츠싱보일러는 내장돼 있는 '2차 잠열열교환기'가 응축잠열 539kcal/kg을 회수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비 절약은 물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동나비엔은 자사의 콘텐츠싱보일러에 NOx나 CO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젠버너' 대신 디지털 가스&공기비례제어로 불필요한 가스 소모가 없고 유해 배기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ECO 프리믹스 버너'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비엔 콘텐츠싱 on水'는 실험상 1년에 467kg의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를 기초로 하면 연간 소나무 16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놓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일러로 손색이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증서 수여자로 참여한 경동나비엔의 김용범 연구소장은 "콘텐츠싱보일러 사용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콘텐츠싱보일러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적인 패러다임을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환경부의 1단계 정책이며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라벨로 표기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향후 2단계 정책인 '저탄소 인증'으로 이어져 기업의 저탄소 제품 생산 동기 부여는 물론 소비자들의 저탄소 제품 구매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성 "따뜻한 사랑 아낌없이 나눠요" 이웃사랑 모금 행사...회사도 매칭 그랜트



대성(회장 김영대)은 연말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 모금

활동을 펼친다.

대성 관훈동 사옥에서 실시되는 이번 사내모금 행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23일 저녁에는 사내 '일일 호프'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 이웃 사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대성은 직원들의 모금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더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이용해 연말에도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대성의 모든 기부금은 종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성 관계자는 "불경기일수록 따뜻한 온정 나누기에 더욱 아낌없어야 한다"며 "대성도 에너지 기업인 만큼 이웃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사랑의 에너지를 더욱 많이 나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귀뚜라미,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 출시 형형 3PASS 연소방식 · 화목,기름 겸용



귀뚜라미그룹이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출시했다.

귀뚜라미그룹(총괄대표 김규원 [www.krb.co.kr](http://www.krb.co.kr))이 기존의 화목보일러보다 많은 장점들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적용시킨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은 190만원대인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가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보일러 등유대비 최대 76%까지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앞으로는 한때 논란이 크게 일었던 심야전기 보일러 전전의 전력 공급 용량 제한에 따른 새로운 대체 연료 보일러로 난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시장에 출시됐던 제품 중 볼수 없었던 눈에 띄는 기능들이 다채롭게 적용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귀뚜라미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는 화목 연소실에 횡형 3PASS 연소방식이 적용돼서 반드시 열교환기를 세 번에 거쳐 나가는 방식이라 기존의 일반 화목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것이 큰 장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화목과 기름을 겸용으로 2개의 화실로 구성돼 열 교환 능력 저하가 없어 열손실이 적게 구현됐다.

뿐만 아니라 회사측은 연소실 안에 물이 흐르는 수관 연료받이를 적용해 여러 가지 고체 연료 연소가 가능해서 놓여촌 등에 안심맞춤인 보일러이면서 화목 투입구 · 연소실을 크게 해 하루 난방이 하루 2회 정도의 나무 투입으로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이밖에도 귀뚜라미는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에 자동제어 콘트롤을 통해 동파방지, 과열안전 및 저수위 조절 기능 등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보일러 내 수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공기량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으로 투입한 땀값은 장기간 서서히 연소되는 편리성도 강화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국 360여개의 대리점 영업망을 통한 제품 구매 및 문의가 가능하고, 전국 2,000여명의 A/S 요원을 통해 언제든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귀뚜라미 그룹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린나이 홈페이지서 보일러 동파 예방 안내 이동형 가스 스토브 무상점검 이벤트도 실시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가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동절기 보일러 동파 방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을 고려해 전면 돌출부를 최소화한 플랫디자인 및 모서리 라운드디자인으로 모던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구석진 부분까지 라운드로 디자인해 세척조를 청소하기 쉽게 처리했으며, 잦은 도어의 개폐를 손쉽게 하기 위해 이지업(easy-up) 핸들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편, 린나이 식기세척기 RDW-730 시리즈는 서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15도 경사의 이지컨트롤 패널 디자인, 한눈에 동작상태를 확인할 대형 LCD 디스플레이 디자인 등을 채택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인 제품이다.

## “연말에너지과소비 행태 고쳐요”

‘루돌프의 위기 씨즌2’ 개최

에너지시민연가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루돌프의 위기 씨즌2’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작년 12월에 진행한 ‘연말연시 야외조명 줄이기-루돌프의 일자리를 돌려주세요!’에 이은 캠페인으로 올해는 적정온도 이상의 실내난방, 과도한 야외조명 및 실내조명, 불필요한 선물 포장 등의 연말연시 에너지낭비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낭비없이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는 법 5가지”가 담긴 예쁜 연하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여성환경연대,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와 함께 각각 ‘그린크리스마스 카드’, ‘쇼핑에서 CO<sub>2</sub> 줄이는 법’, ‘재활용 재사용 되살림물품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는 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고 전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09년 업무보고’ 29일 개시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 박환규 사장 진두지휘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정부 공기업선진화 시책에 부응하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창립이래 처음으로 새해 년도 업무보

고를 12월 29일부터 앞당겨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당긴 것은 통상적으로 1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지던 연두 업무보고를 조속히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업무보고를 앞당긴 장본인은 취임 40일째를 맞는 박환규 사장이다.

박 사장은 30년 공직생활로 다져온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임을 다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비상경영 TFT를 발족하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외 7개국의 가스조리기기 시장 동향, 발간 예산진, 가스기기업체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수출 지원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회장 함회인)는 가스기기업체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조리기기 주요해외시장 동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선진 5개국 조사 이후 10번째인 이번 조사는 향후 가스조리기기 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7개 국가의 시장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현지시장 동향, 관련법규 및 제도, 품목별 구조, 버너별 시장분포 비율, 수요량, 표준모델의 소매가격, 사용가스의 종류 및 성분, 가스 제품 카테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10회에 걸쳐 25개국의 시장을 조사한 정보를 제공한 진흥회는 “앞으로도 업계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출유망국가를 추가로 선정.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린나이, 요리 초보 배려한 오븐 출시







또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하며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 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폐열이나 여열을 활용해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해 기준 전국 지역난방 대상 가구는 159만호로 정부는 2012년 242만호, 2017년에는 312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을 위해 지역냉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안산·광교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거쳐 2015년까지 5만호 보급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75%보다 3.8% 높은 78.9%의 고효율 제품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도 국내 1의 몇몇 업체들이 성능검사 및 인증신청을 준비 중으로 내년에는 고분자연료전지 분야에서 다수의 인증제품들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인증제품의 출시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인 고품질 제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분야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총 9억3000만원의 정부 자금을 과학기술원 및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지원해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의 기술기준제정 및 성능평가 장비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 보일러 100만대 시장을 대체할 만큼 보일러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연료전지 열병합시스템 첫 인증

에관공, 도시가스 이용 주택내 전기·열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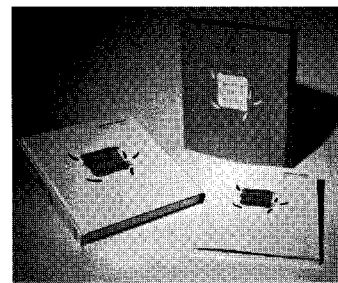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1kW급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에관공은 지난 11월 28일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분야 최초의 설비인증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연료전지 시스템은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설비로 가전기기처럼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 내부에 설치 가능한 시스템 가전기기형 열병합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발전모듈(전기발생장치), 열회수 장치, 보조버너 등을 일체화해 기존의 보일러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정격 효율이 인증기준인

## 경동나비엔, 30주년 사사 발간 총370쪽 4장 구성...미래비전 확고히



▲ 경동나비엔의 30년 사사.

생활환경 창조기업 경동나비엔이 창립 30주년(1978년~2008년)을 기념해 그간의 족적을

집대성한 ‘30년 사사(社史)’를 편찬했다.

이번 사사 편찬은 역사를 미화시키기보다 영욕의 시대상을 하나하나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반성속에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 표명은 물론 미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총 370쪽으로 구성된 사사는 △CEO와의 대담 △현황

및 연혁화보 △통사 △온돌과 보일러의 역사 △부록 순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4장으로 구성된 통사는 1978년 ‘경동기계’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현재의 모습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제1장 ‘원대한 포부’에서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 공장 설립 등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던 다양한 애기거리가 담겨 있다. 제2장 ‘국내 정상으로 도약’에는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콘텐싱 가스보일러를 출시함으로써 기술경동 시대를 열었던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담았다.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한 3장에서는 손연호 회장 취임 및 비전 2014선포를 통해 각종 변화 속에 혁신의 물결이 쳤던 내부의 모습을 조명했으며 업계 최초 콘텐싱 가스보일러 미국 수출, 아시아 최초 유럽품질인증CE 열효율 최고등급 4star 획득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제4장 ‘글로벌 기업에 도전’에는 최적의 온돌난방을 구현한 온수중심 콘텐싱보일러 ‘나비엔 콘텐싱 on水’ 출시와 더불어 상호 및 CI변경, 세계 유수의 전시회 참가 등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 동력들을 빠짐없이 기술했다. 통사 각 장 사이에 있는 제품 역사화보는 그간 경동의 기술력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온돌과 보일러의 역사’에는 온돌문화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정용보일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기술함으로써 향후 온돌과 보일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 부록은 인증 및 수상 현황, 사업장 현황, 조직도 변천, 연표 등으로 꾸러졌다.

편찬 실무위원장이던 최병기 마케팅팀 팀장은 “역사의 페이지를 한장 한장 엮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더 커졌다”라며 “이 사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침과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책과 별책(120쪽)은 각각 1,000부, 2,000부씩 발행해 관계사,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임직원 및 전국 대리점 등에는 따로 별책을 보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편찬에는 사사 전문 업체 ‘사사연’이 함께 했다.

## 보일러 KS검사체계 변경 ‘윤곽’ 자체검사·형식승인검사로 이원화

가스보일러의 KS검사체계가 자체검사와 형식승인검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는 최근 보일러표준기술연구회를 개최하고 KS검사체계를 당초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공인검사기관검사를 형식승인검사로 용어를 수정해 이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검사체계는 KS B 8109(일반보일러)와 KS B 8127(콘텐싱 가스온수보일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자체검사는 KS인증을 받은 자가 자체 검사설비로 형식검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로 시험대상항목은 △가스통로의 기밀 △물통로의 내압 △평판표시 △가스소비량 △연소상태 △전기점화 성능 △절연성능 △걸모양 등 8개로 정했다.

신정제품에 대한 정보확인을 위한 형식승인검사는 보일러 형식별로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가스소비량, 급배기방식, 사용가스, 난방순환방식만 다른 경우 대표형식에 대해 전 항목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다만 형식승인 이후 △가스소비량 △난방성능 △온수 성능 △CO농도(부피%) △가스통로의 기밀 △안전장치 등의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다시 형식승인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KS인증을 받은 후 추가되는 형식에 대해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시 구조도, 설계도면(열교환기, 버너, 팬, 순환펌프, 가스밸브, 콘트롤러 등), 배선도, 부품목록, 자체검사 성적서 등 기술문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개발되는 보일러는 시리즈별로 개발되고 있고 각 시리즈마다 용량별, 급배기방식별, 가스종류별로 수십개의 모델(형식)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구조, 재료 및 대부분의 부품이 동일한 만큼 전모델을 모두 형식승인검사를 받으면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커지는 만큼 같은 시리즈의 경우 대표적인 모델만 전 항목검사를 받고 나머지 모델은 주요성능만 검증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성능변화가 수반되는 부품 변경시 성능항목은 효율등급과 연계해 고효율 및 효율등급을 받은 제품은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자인, 색상 변경 등으로 형식명을 병용하는 경우 공인검시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했다.

차후 가스보일러표준기술연구회는 오는 24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고효율 산업용보일러 ‘계류’ 전략 고가로 판매 부진...정책 부재도 원인

“지난 1년동안 고효율기자재에 등록된 산업용보일러 10대도 못 팔았습니다”

이는 산업용보일러 제조사 한 관계자의 말로 고효율기자재 등록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고효율 산업용보일러를 개발했지만 정작 일반보일러에 비해 고가이다보니 판매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부족이 고효율 산업용보일러 보급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빠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고효율 산업용보일러가 ‘계류’ 신세로 전락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으로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와 유류용보일러’가 지정돼 있다. 12월 10일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고효율기자재는 가스용은 133개 모델, 기름용은 8개 모델 등 총 141개 모델이다.

기업별로는 가스용의 경우 대열보일러가 37개 모델을 고효율기자재로 등록해 최다 등록기업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대림로얄보일러 27개, 한신보일러 24개, 한국미우라공업 14개, 부스타 11개, 삼양보일러 10개, 광희보일러 8개, 동양열산업과 동아기계공업이 각각 1개 모델을 등록했다. 유류용은 광희보일러만이 유일하게 8개 모델을 고효율기자재로 등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체에너지소비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산업에 대한 정책부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고효율제품에 대한 보급확대가 필수인데 산업용보일러만은 소외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조명기기나 전동기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정책이 있으나 유독 산업용보일러분야에서는 기금지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이나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유류용도 고효율기자재에 지정됐으나 업계에서 고효율 등록에 관심이 없다”라며 “상대적으로 판매가 많은 온수나 진공온수, 스팀보일러도 고효율 품목으로 확대해 전체 산업용보일러시장을 고효율 경쟁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콘덴싱보일러 정책의지 밝혀 변화 예고 수출 급신장...가스온수기 호지종목 우뚝

올해 가장 큰 화제는 지난 10월에 정부가 201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 80%를 86%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안이 나와 충격을 준 것이다. 효율 86%를 내는 보일러는 콘덴싱 외는 나올 수 없는 효율로 앞으로 일반보일러는 퇴출시키고 콘덴싱보일러만 시장에 남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콘덴싱보일러의 보급률은 4%대로써 장기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기에 보일

러 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기존의 보일러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올해의 특징이다. 귀뚜라미는 지난 1월에 2012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이란 비전선포 후 그동안 주력했던 열기 사업에서 벗어나 신성엔지니어링 인수 후 냉기, 동광에너지 인수 후 산업용보일러 등으로 업종을 확장했다. 경동나비엔과 대성쎬틱은 콘덴싱가스온수기를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제품을 올해의 수출 효자종목으로 올려놓았다.

■ 액법·KS의 EN규격 부합화

가스보일러에 관한 액법과 KS의 EN규격부합화 고시가 모두 2월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일러 산업의 수출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보일러에 관한 제도과 형태 등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고됐다. 중기거점사업 즉 수출용보일러 개발사업도 대체로 순조로워 6월에 시제품 제작단계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7월에는 가스안전공사와 서울대학교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미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하고 있음을 밝혀 업계에 놀라게 했다.

올해는 내수판매의 폭이 좁아졌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2월에 지난해 가스보일러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만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자 모든 제조사는 탄식했고 그 위기감이 과당경쟁의 심화로 이어져 특판에서 콘덴싱보일러 품목, 교체시장에서 모든 품목에 저가입찰이 만연해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 산업용보일러 MAS파행

오랜 논쟁중 하나인 보일러 성능분쟁의 하나가 해결되는 조짐을 보였다. 가스안전공사의 실사용환경 효율측정결과 일반보일러보다 콘덴싱보일러의 열효율이 28% 정도 높다는 것이 공식 확인돼 효율등급 일원화의 길이 열렸다.

몇몇 단체의 기관장의 대표가 바뀌기도 했다. 회장

없이 파행을 겪던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회장으로 함희인씨가 공식 선출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으로 새로이 강옥진씨가 뽑혔다. 한편 기기협회는 업역을 에너지분야까지 확장하고자 이름을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로 변경한다.

산업용보일러업계 중 상장사의 상징으로 불리던 동보중공업은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급기야 5월에 삼미식품에 흡수합병되는 불운을 겪었다. 옆친대 님친격으로 7월에 조달청과 MAS를 둘러싼 가격마찰로 산업용 보일러품목이 MAS 품목에서 제외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산업용보일러 업계가 침체됐음을 말해주고 있어 업계 종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목이다.

2년 이상 업계의 채산성 악화 원인이 됐던 원자재값이 안정화되면서 그나마 숨통을 틔웠다. 국제 니켈값은 최고가격보다 66% 이상, 구리값은 58% 떨어졌다.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실질적인 업계의 구매비용은 큰 변화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대 대성 회장 2009년 경영 화두

“다 함께 공존, 공생하는 원-원 경영”



- 2009년 경영 화두, 고객과 공존, 공생하는 ‘원-원 경영’으로 제시
- “모두 힘을 합쳐 다 함께 승자되는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
- “62년이라는 대성의 경험과 노하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디 큐브 복합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

대성 김영대 회장은 2009년 새해 경영 화두를 ‘원-원 경영’으로 제시하며, 대성의 62년 경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과 공존, 공생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대 회장은 “2008년에는 지구촌 전체가 전례 없는

극심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며, 이제 앞으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갈구할 것이니, 대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새 시대를 향한 비전으로 그 길을 개척하자” 고 전하며, “2009년에는 모두 힘을 합쳐 다 함께 승자가 되는 경영 모델을 계속 창출해가는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009년도 경영 방침을 “다함께 공존, 공생하는 윈-윈(Win-Win) 경영” 으로 정하고, 소비자와 고객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인 경영철학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대성이 도전하는 디 큐브(D3) 신도림동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위해, “대성의 모든 가족이 힘을 모아 ‘윈-윈 경영’ 을 실현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자” 고 독려하며, 디 큐브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도전을 위해 · 대성의 임직원, 협력사 모두 ‘아름다운 친절’ 을 실천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 ‘친절과 IT의 융합’ 을 통해 디 큐브 복합도시를 세계 최첨단의 IT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대 회장은 “6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대성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윈-윈 경영을 디 큐브 복합도시를 비롯한 기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가자” 고 제의했다.

한편, 대성은 2009년 창립 63년을 맞이하며, 신도림동에 쇼핑몰, 극장, 영화관, 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190m 높이의 디 큐브 복합도시를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 서울시내 36개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서울시 54억원 투입, 내년 5월까지 설치 완료

오는 2009년 5월까지 서울시내 36개소 복지시설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된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예산 등 54억원(국비 30억원, 시비 24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19개 자치구에 지원한 상태며 지원 금액은 내년 5월까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로 사용된다.

전체 36개소 중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23개소, 태양열 12개소, 지열 1개소로 각각 정해졌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온실가스 저감 및 복지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아동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3개소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투자 규정에 따라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대규모 물량과 비용을 투입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36개소 중 15개소가 어린이집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아이টে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마포구의 경우, 망원 우수지 체육공원 스탠드에 설치함으로써 색다른 경관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외에도 SH공사 임대주택단지 7개소에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50kW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노원 월계4동 사슴1단지, 중계3동 중계3단지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이후 5개소에 대한 사업을 5월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산된 전력은 임대주택의 엘리베이터, 급수펌프 등 공동부하용으로 이용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이 주로 이

용하는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린나이, '요리 왕중왕 대회' 우승자 선발** 복합오븐, 상품권 등 수여...앞으로 홍보대사 활동



린나이코리아 아 오븐코리아 요리왕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인 주부 박민경씨가 대상패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는 최고의 오븐 요리왕을 뽑는 '오븐코리아 요리왕 중왕 대회' 최종 결선대회에서 주부 박민경씨가 최고의 요리왕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6일 온라인 레시피 공모로 시작한 '오븐코리아 요리왕 중왕 대회'는 총 3개월에 걸쳐 온라인 레시피 심사와 2번의 예선 대회를 했으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4명의 최종 결선 진출자가 실제 요리 솜씨를 겨룬 결과 '베이컨말이 미트로프'와 '쇠고기파이와 버섯 참치 샐러드'를 선보인 박민경씨가 최고 요리왕으로 선정됐다.

'베이컨말이 미트로프'는 가운데가 뚫린 케익 모양으로 중앙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화려한 색채감을 더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쇠고기파이와 버섯 참치 샐러드'는 상추 안에 참치와 함께 느끼하지 않게 고추장을 조합시켜 깔끔한 맛을 선보인 것이 한국인에게 잘 맞는다는 평가다.

총 4명의 요리왕 결선 진출자들은 깃잎 스테이크 피자, 베이컨 관자말이, 웰링턴 스테이크 등 이

린나이코리아 오븐코리아 요리왕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인 주

색적이고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선보이며 흥미로운 대결을 펼쳤다. 우승자는 린나이 복합오븐과 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동원 선물세트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으며 앞으로 오븐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 **내년 신재생에너지 총 6791억원 투입** 지경부, R&D사업 2395억, 보급사업 4396억

지식경제부가 2009년 신재생에너지에 R&D사업 2395억원, 보급사업 4396억원으로 총 67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464억 증액된 액수다.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한 이번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사업별 예산규모, 지원내용,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은 전년대비 315억원 증가한 2395억원으로 이중 차세대 박막전지 개발, 풍력발전기 핵심부품 국산화 등 신규과제 선정에 983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급사업은 전년대비 1048억원 증액한 4396억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위주의 보급으로 이들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경우 일반주택에 태양광·태양열·바이오 등을 1만2000가구에 보급하고, 특히 마을·단지 단위의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설치계획 컨설팅 등으로 그린 빌리지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자금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2009년 지원사업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예산의 60%

를 상반기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뉴비전 선포식 ‘Fly KEMCO, Fly 2008’ 개최 에관공, Smart & Green 라이프스타일의 전도사 되다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이 에너지 효율을 현명하게 높이고, 탄소배출이 없는 깨끗한 녹색의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미래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의 전도사로 나섰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뉴비전 선포식 『Fly KEMCO, Fly 2008』을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 ‘Creating Smart & Green Lifestyle’ (스마트 앤 그린 라이프스타일 창조)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관리공단은 “새로운 비전에서 ‘Smart Lifestyle(현명한 라이프스타일)’은 에너지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문화를 뜻하며, ‘Green Lifestyle(녹색 라이프스타일)’은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를, ‘Creating(창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공단은 “뉴비전 선포식에서는 ‘공단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공단의 내·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인터뷰를 담은 UCC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으며, 선포식 후 이어진 제2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2008년도 창의혁신과제’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하는 창의혁신BP대회가, 제3부에서는 인기 전자현악단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임직원이 한데 어우러져 최신 댄스를 배우고, 본부별 장기자랑이 펼쳐지는 화합의 마당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은 이번 뉴비전 선포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내 유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쌓아온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창조하는 선도기관으로서 영역을 대폭 확장시켰다”며, “가정, 기업, 공공 등 우리 사회의 전 부문에서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 이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전도사로서의 역할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했다.

## 가스안전공 · 귀뚜라미보일러 파란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귀뚜라미보일러(총괄대표 김규원)와 공동

으로 최근 장애어린이집인 벽진원(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24-5번지)을 찾아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장관, 김장 봉사와 함께 가스의 파란 불꽃을 상징하는 파란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란 주제로 파란산타들이 장애인에게 목소리, 장갑 등 희망의 선물도 전달했다.

특히 샤이니, 이수영, 강원래, 2AM, 블랙펄 등 인기 연예인도 많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나눔 작은 음악회,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책임기도 함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